

『醫門寶鑑』의 편찬과 주명신의 행적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¹
劉垓相¹ · 金南一¹ *

The study about compilation of *Euimunbogam*(醫門寶鑑) and chronicles of Myoug-Shin Zhu(周命新)

Yoo Jun-sang¹ · Kim Nam-il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 *Euimunbogam*(醫門寶鑑) is a synthetic medical book based on *Dongeuibogam*(東醫寶鑑), which was written by Myoug-Shin Zhu(周命新) in middle of Joseon era. And the book was published by Myoug-Seok Lee(李命錫) in 1918. This book has generally known as it's written in 1724 so far. But the life of Myoug-Shin Zhu is not well-known, and the year when *Euimunbogam* was compiled should be reconsidered.

Method : We will find the historical records of Myoug-Shin Zhu through the close study of Joseon literatures.

Result :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Ilseungrok*(日省錄), *Taeuiwonseonsaengar*(太醫院先生案), *Yeolha diary*(熱河日記), *Yeonamgip*(燕巖集), *Euimunbogam* show that Myoug-Shin Zhu was born in 1729 and he died in 1798. He worked as Ju-Bu(主簿) in HyeMinseo(惠民署) and Euiyagdongcham(醫藥同參) in Naeuiwon(內醫院).

Conclusion : Myoug-Shin Zhu wrote *Euimunbogam* in 1784. And he was one of the famous physician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king Young-Jo and Jung-Jo.

Key words : *Euimunbogam*(醫門寶鑑), Myoug-Shin Zhu(周命新), Euiyagdongcham(醫藥同參), Oriental Medicine.

I. 서론

『의문보감』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종합의서로, 『수민묘전』, 『제중신편』과 더불어 『동의보감』을 저

본으로 하여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주명신은 동의보감학파¹⁾로 분류되는 인물로 ‘허준의 大扨(수제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²⁾

그는 동의보감학파로 분류되는 다른 조선 중후기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4-3190. E-mail : southkim@khu.ac.kr
접수일(2012년 12월 5일), 수정일(1차 : 2013년 2월 18일 2차 : 2월 27일), 게재확정일(2013년 3월 6일)

1) 김남일, 「한국한의학의 학술유파에 관한 시론」, 2004 한국 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 p.8.

2) 1918년 간행된 『의문보감』의 序에서 정관섭은 주명신을 “蓋許陽平溪後大扨也.”라 칭했다.

의 의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의보감』의 패러다임과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동의보감』의 발전적인 계승을 추구했고, 그 실용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춰 『의문보감』을 편찬했다.

의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의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찰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의서를 쓴 인물에 대한 지식은 해당 의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의문보감』의 경우 조선 중기에 편찬되었으나, 활판본으로 간행된 것은 1918년의 일로, 이때가 되어야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인 주명신에 대해서나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이 활판본의 서문과 자서를 근거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근거로 『의문보감』이 1724년(경종4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三木榮 이래로 최근까지 대부분의 의문보감 관련 연구는 이를 따랐다. 또한 주명신의 행적이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숙종과 영조 연간에 활동했던 의가였다고 알려졌다³⁾.

다만, 오재근은 『의문보감』 편찬시기와 주명신의 생몰연대에 대한 기존의 추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주명신의 생몰연대를 1729-1798년으로, 그리고 의문보감의 편찬연대를 1784년으로 추정하였다⁴⁾.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⁵⁾, 『일성록』⁶⁾, 『태의원선생안』⁷⁾, 『열하일기』⁸⁾, 『연암집』⁹⁾, 『의문보감』¹⁰⁾

에서 드러난 주명신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주명신의 생몰연대 및 행적을 살펴보고, 의문보감의 편찬시기와 간행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의문보감』의 편찬시기

오랫동안 『醫門寶鑑』은 1724년(경종 4년)에 편찬된 책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것은 재간행된 『醫門寶鑑』의 서문의 내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醫門寶鑑』은 1918년 이명석에 의해 활자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 조선 말기의 문신이었던 고종 때 이조참의를 지냈던 丁觀燮(정관섭)¹¹⁾이 서문을 달았다.

이 서문을 살펴보면 “나는 明陵朝(명릉조)와 元陵朝(원릉조)에 嶠南(영남)의 岐下 주명신이 의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양평군 허준의 수제자였으며...”¹²⁾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또, 自序에는 “甲辰年 계축에 상주의 주명신이 서하다.”¹³⁾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明陵과 元陵은 각각 숙종과 영조의 陵號(능호)이므로¹⁴⁾, 기존에는 위의 글을 근거로 하여, 주명신을 숙종(재위 1674~1720)과 영조(재위 1725~1776) 시대에 활동했던 의가로 생각했고, 三木榮¹⁵⁾을 필두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최근까지 이 주장을 따라

9)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10)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11) 정관섭에 관한 기록은 다음의 주소에서 참고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Id=PPL_6Jod_A1841_1_0033025&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Id=PPL_6Jod_A1841_1_0033025&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12) “我 明 元兩陵朝時嶠南周岐下命新以醫學名於世 蓋許陽平波後大拇也.” :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序.

13) “歲在甲辰季春尙州周命新序.” :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自序.

14) 능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의 주소에서 참고하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10261&mobile&categoryId=200001108>

15) 三木榮은 경종4년 갑진년에 『의문보감』이 편찬되었다고 기록하면서 “同書序”라고 기재하고 있어, 정관섭의 서문에 근거해 편찬시기를 추정했음을 알 수 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17.

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12, 217.

4) 오재근, 조선 의서 수제 약성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20.

5) <http://sjw.history.go.kr/>

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7)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_Old.jsp?srchTab=1&DataID=KIOM_A149_Z_001&DataName=%E8%AD%B0%E8%97%A5%E5%90%8C%E5%8F%83%E5%85%88%E7%94%9F%E6%A1%88&id=KIOM_A149_4_001_0004)

8)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의문보감』이 편찬된 甲辰年을 1724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숙종대부터 영조대에 의원으로 활동했던 주명신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醫門寶鑑』에 수록된 의안 중에는 자신의 치료 경험 48개를 실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상, 郡守, 내시, 선비 등을 치료한 예들이 있다. 고위층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데, 문헌에서 주명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그가 전문적인 醫人이 아니라 儒醫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⁶⁾

그런데, 여러 문헌에서 영·정조 대에 혜민서와 내의원에서 활동했던 의관 주명신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다. 『承政院日記』, 『日省錄』과 조선시대 역대 내의원에 근무한 의원의 명부와 鍼醫, 醫藥同參 인원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의인지(醫人誌)인 『태의원선생안』¹⁷⁾, 박지원의 『연암집』 등에서 의원 주명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처음 주명신이 등장하는 곳은 영조 49년(1773년)의 『承政院日記』 기사¹⁸⁾이며, 이후로 『承政院日記』에만 110여 번에 걸쳐 주명신이 등장한다. 또, 『태의원선생안』에는 의원 주명신의 본관이 상주로 기록돼 있는데, 자서에서 밝힌 본관 상주와 일치한다.

따라서 『醫門寶鑑』을 쓴 주명신은 숙종-영조 대의 의가가 아니라 영·정조대의 의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醫門寶鑑』이 쓰여진 甲辰年을 1724년이 아니고, 1784년인 것으로 보인다.

2. 1918년의 활판본 간행

『醫門寶鑑』은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¹⁹⁾ 1918년

이명석의 교정을 거쳐 회동서관에서 활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명석은 1838년(헌종 4년)에 출생해, 1870년(고종 7년)에 식년시 의과에 급제하여 혜민서와 내의원에서 일하며 고종을 모셨던 의관이었다. 그는 율과에 급제했던 조부를 빼고는 부친과 증조부, 고조부가 모두 의과에 급제해 의관의 일을 했던 전형적인 중인 집안의 사람이었다.²⁰⁾ 특히 증조부였던 이지응은 전의감의 久任으로 일을 했으며, 『承政院日記』에서는 정조 원년과 9년의 기사에서 등장하는데, 이때는 주명신이 내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명석이 『醫門寶鑑』의 필사본을 구한 배경과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명석이 『醫門寶鑑』을 다시 활판본으로 간행하게 된 계기는 정관섭이 쓴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근래에 畏齋 이명석 또한 孝養을 위해 이 기술을 연구하였는데, 參訂損益하여 이 책을 간행해 기하 주명신의 고심 끝에 남긴 향기를 알리고자 하였다.”²¹⁾고 쓴 것과 같이 이명석은 『醫門寶鑑』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醫門寶鑑』을 연구하였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활판본으로 간행을 했다.

발행은 회동서관에서 했는데, 회동서관은 『經驗神方』, 『單方秘密經驗新編』, 『東西醫學新論(洋裝)』, 『東醫壽世保元』, 『方藥合編』, 『新校重訂方藥合編』, 『新訂育兒法』, 『醫門須知』, 『醫門寶鑑(洋裝)』, 『醫門寶鑑(半洋裝)』, 『醫方新鑑』 등의 의학서적을 비롯해

19) 고려의학과학원 교수 김동일은 해제에서 “『醫門寶鑑』은 임상치료편람식의 훌륭한 책으로 편찬되었으나 즉시 출판되지 못하고 수사본으로 오랜 기간 전해오다가 이명석에 의하여 1917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다.”고 하고 있다. 1917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에서는 볼 수 없어 1918년의 오자일 것으로 생각한다. 주명신 저, 김동일 역, 국역한의학대계 1권, 1999, 해동출판사, p.6.

20) 父 : 이재형(李在珩) 관직 正 醫科, 祖父 : 이중익(李重益) 관직 律學別提 율과, 曾祖父 : 이지응(李祉膺) 관직 久任 正 醫科, 高祖父 : 이인우(李寅佑) 관직 典醫監直長 醫科,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21) 近世李畏齋命錫亦爲孝養 講明斯術 參訂損益 欲梓是書 俾 軫岐下之苦心遺芬 :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序.

16) 하기태·김준기·최달영, 『의문보감』에 수록된 의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권 4호, 2000.1, p.30.

17) 안상우, 「고의서산책」29, 『민족의학신문』, 2000.4.24.

18) 『承政院日記』, 영조 49년 12월 14일, “又命書曰, 其相雖莫能知, 聞其聲與答, 可知純實, 既入屬惠民署云, 議藥廳今雖過數, 且聞有才云. 此後此數中有窠, 周命新其令內局即補.”.

백 수십종의 각종 출판물을 발행한 출판사이자 서점이었고, 다목적 출판 기업이기도 했다.²²⁾ 이종국²³⁾에 따르면 이 당시 출판 경향 중 하나는 “동양고전의 복간, 또는 해설서의 출판 사업이 활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서구 문물의 수용과정에서 우리 전통에도 주목하게 되는 일종의 반작용과 같은 것이었다. 회동서관에서 발행된 의서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고 임상에 적용하기 쉬운 실용성을 가진 책들임을 알 수 있는데, 출판사의 영리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初學者나 庸醫라도 쉽게 처방을 찾을 수 있도록 편집된 『醫門寶鑑』 역시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책이었기 때문에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3. 周命新的 생몰연대와 행적

1) 생몰연대의 추정

『承政院日記』, 『日省錄』과 『태의원선생안』의 기록을 통해 주명신의 생沒年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承政院日記』 중 정조 21년(1797년) 6월 15일 기사²⁴⁾와 같은 날 『日省錄』의 기사²⁵⁾를 보면 이 때의 주명신의 나이가 69세라고 밝히고 있다. 역산을 해보면, 1729년이 주명신의 출생연도임을 알 수 있다.

또, 『태의원선생안』의 「의약동참선생안」을 보면, 주명신이 己酉年에 출생했다고 기록돼있는데, 1729년이 己酉年이며, 이를 통해 주명신의 출생연도가 1729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沒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있다. 『承政院日記』 중 정조 22년(1798년) 11월 19일 기사를 보면, 주명신에게 葬需米²⁶⁾ 등을 題給하는 일

에 대해 계하고 정조에게 허락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주명신의 沒年을 179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주명신의 나이 70세였다.

따라서 주명신은 1729년에 출생해 70세였던 1798년에 沒한 것으로 보인다.

2) 주명신의 행적

『승정원일기』, 『일성록』, 『태의원선생안』, 『열하일기』, 『연암집』, 『의문보감』 등에서 주명신의 행적을 찾아 그의 생애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출생

1729년(영조 5년)에 출생. 그의 字는 文哉, 본관은 尙州²⁸⁾였으며, 號는 岐下²⁹⁾였다.

의학에 뜻을 두고 의원으로서의 일을 시작함.

『승정원일기』에는 45세 이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의문보감』의 의안에 주명신이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虛損病을 스스로 치료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30세 이전에 의술을 익히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³⁰⁾

의서편찬의 시작

30세 무렵(壯年)부터 博施濟衆의 뜻을 품고 의서 편찬을 시작한다.³¹⁾

22)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정점-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연구 통권 제 49호, 한국출판학회, 2005, p.215. pp.239-245.

23)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정점-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연구 통권 제 49호, 한국출판학회, 2005, p.227.

24)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6월 15일, “趙鎭寬, 以吏批言啓曰, 新除授積城縣監周命新今年爲六十九歲年限已過改差, 何如? 傳曰, 允.”.

25) 『日省錄』, 정조 21년 6월 15일, “吏批啓言 新除授積城縣監周命新今年爲六十九年限已過請改差允之.”.

26) 진흥청에서 왕족이나 관리가 죽었을 때 내려주는 장례용 쌀.

27) 周命新은 『승정원일기』에서 117건, 『일성록』에서 19건(『승정원일기』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기사 4건), 『열하일기』에서 2건, 『연암집』에서 1건, 『태의원선생안』에서 1건 등장한다.

28) 『태의원선생안』의 「의약동참선생안」에 주명신에 대해 “尙州 周命新 文哉己酉 積誠嘉善.” 이라고 써여 있는데, 주명신의 본관이 상주이고 字는 文哉이며, 己酉年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我…岐下命新…” :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序.

30)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p.110, “余年三十時春間得感氣數日大痛因大勢稍減即爲出入作勞而所食不過三四次米飲將至一月…”.

31) 『의문보감』의 自序에 주명신은 “余於壯年有志於斯脫略世事經營數十載勞神費精遍歷古今醫書撮其精要問亦竊附己意作爲此編.”라 밝히고 있어, 장년부터 의서 편찬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壯年을 이립과 더불어 30세로 보는

혜민서에 봉직

혜민서에서 봉직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승정원일기』에는 그가 45세였던 영조 49년(1773년)에 그가 혜민서에서 봉직했다는 기록이 있다³²⁾. 영조는 주명신에 대해 재주가 있으며 純實하다고 평가하여 후에 자리가 나게 되면 내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명한다.³³⁾ 그러나 49세에 혜민서 主簿인 주명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³⁴⁾ 내의원 의관으로 이직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 건릉제의 칠순연 축하 사행단에 참여

주명신은 52세(정조 4년)에 朴明源(박명원)의 裨將으로 참여하여 청에 다녀오게 된다. 이 때 연암 박지원과 동행하게 된다.³⁵⁾

용례를 따라 30세 무렵부터 의서 편찬에 뜻을 둔 것으로 본다.

- 32) 이 해 8월에 일어난 역모에 이름이 거론됐던 이찬을 推載하라는 상소에 혜민서 主簿의 직책을 가진 주명신의 이름이 등장한다. :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8월 19일, “惠民署主簿…周命新…罪人禮, 名入推載.”
- 33)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12월 14일, “又命書曰, 其相雖莫能知, 聞其聲與答, 可知純實, 既入屬惠民署云, 議藥廳今雖過數, 且聞有才云. 此後此數中有窠, 周命新其令內局即補.”
- 34) 이 해 8월에 일어난 역모에 이름이 거론됐던 이찬을 推載하라는 상소에 혜민서 主簿의 직책을 가진 주명신의 이름이 등장한다. :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8월 19일, “惠民署主簿…周命新…罪人禮, 名入推載.”
- 35) 박명원은 연암 박지원의 8촌 형이며, 박지원 역시 박명원을 따라 사행단에 함께 해, 후에 『열하일기』를 썼다. 『열하일기』의 「행재잡록」에서 “조선국 진하 겸 사은사(朝鮮國進賀兼謝恩使)로 먼저 열하 행재소(行在所)로 간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정사(正使)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부사(副使)이조 판서잠시 차함(借啣)이다. … 종관(從官)주명신(周命新), 정사의 비장(裨將)이다.”라 기록돼 있고, 「태학유관록」의 8월 9일 기록에 “오른편 행각에 들어가니, 역관 세 사람과 비장 네 사람이 한 구들에 누워 자는데 목덜미와 정강이를 서로 걸치고 아랫도리는 가리지도 않았다. 천둥소리처럼 코를 골지 않는 자가 없는데, 혹은 병을 거꾸러뜨려 물이 쏟아지는 소리요, 혹은 나무를 켜는데 툇나가 긁히는 소리였으며, 혹은 혀를 끌끌 차며 사람을 꾸짖는 시늉이요, 혹은 공공거리 남을 원망하는 정경이다. 만리 길을 함께 고생하고 와서 자나 먹으나 떠남이 없으며, 그 분별이아말로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생을 같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든 모습을 볼 때엔 한 자리에 꿈이 다르고, 그의 간담(肝膽)은 조(楚)·월(越)처럼 먼

『의문보감』의 편찬

56세가 되던 정조 8년(1784년)에 『의문보감』을 편찬했다.

내의원 의관으로 봉직

언제부터 내의원에 봉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성록』에 그가 58세 되던 정조 10년(1786년)에는 藥房에 근무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³⁶⁾.

62세가 되던 정조 14년에는 의약동참으로서 軍職을 받고, 冠帶常仕³⁷⁾하게 된다³⁸⁾. 이때부터는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내의원 의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³⁹⁾ 그리고 곧 수빈의 순조 분만을 위한 산실청에서 차비대령의관으로 직속한 공로로 加資를 받는다(6월 24일)⁴⁰⁾. 그리고 얼마 뒤 僉知中樞府事に 임명됐다(8월 5일-10월 27일)⁴¹⁾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라고 기록돼 있으며, 비장 중 한 사람이 주명신이다.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d=kc_mk_h008&gunchald=av006&muncheld=01&finId=001&Nodeld=&setid=573834&Pos=2&TotalCount=4&searchUrl=ok). 『승정원일기』에는 정조 4년 9월 17일 기사에 “臣明源軍官周命新”이라고 기록돼 있다.

- 36) 정조 10년, 상계군 이담의 모반과 관련해 합문을 닫고 상선을 물리치라는 전교를 거두도록 올린 상소에 관한 기사(『일성록』, 정조 10년 12월 14일)와 頒下加監申禁事目에 관한 기사(『일성록』, 정조 12년, 10월 12일)에 각각 ‘藥房周命新’의 이름이 보인다.
- 37) 관대 차림으로 매일 출근하는 일종의 정규직 일.
- 38)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1월 12일, “李晚秀, 以內醫〈院〉都提調·提調意啓曰, 醫人周命新, 議藥同參加設差下事, 命下矣. 令該曹依例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 39) 정조 14년에는 『승정원일기』에 22회 등장하며, 이 중 17회에 걸쳐 진료에 참여하는 기록이 나온다. 이 중에는 주명신이 단독으로 입시하여 정조의 질병에 대해 의논하고 처방에 대해 의논하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 40)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6월 24일, “待令醫官康命吉功勞可賞[賞]熟馬一匹面給, 守令待窠調用. 周命新·李敬培, 別掌務官康晉三, 上掌務官李玄圭依例加資.”
- 41) 『승정원일기』의 정조 14년 8월 5일 기사에 “兵批 …以周命新爲僉知”, 정조 14년 10월 27일 기사에 “鄭益祚, 以兵曹言啓曰, 僉知中樞府事周命新, 身病瘁重, 勢難供職, 呈狀乞遞, 西樞雖是閑局, 不可一向虛帶, 竝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이란 기록이 있다.

64세에는 정조에게서 “근래 의원 중 강명길과 주명신 외에는 쓸 만한 사람이 없다.”⁴²⁾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의 의술에 대해 신임을 얻었다.

65세에는 2월에 당시 首醫였던 강명길 등과 함께 가순궁(수빈)의 문안 의관으로 임명되었다⁴³⁾.

3월에는 수빈의 숙선옹주 분만시 산실청에서 직속한 공로로 加資받는다(3월 7일)⁴⁴⁾. 후에 五衛將에 임명됐다가 곧 개차된다.(6월 5일-6월 21일) 6월 19일에는 同知에 單付된다⁴⁵⁾. 7월에는 잘못된 茶飲을 낸 죄로 鴻면양, 변관해와 더불어 정조의 노여움을 사는 일도 생기지만⁴⁶⁾, 계속해서 정조의 진료를 한다.⁴⁷⁾

66세가 되던 정조 18년(1794년)에 주명신은 다른 의관들보다 높은 직책인 차비대령의관이였다.⁴⁸⁾

1월 현릉원 행차시에 반과의 금법을 어긴 주명신과 관련된 서리에게 곤장을 치는 벌을 내린다.⁴⁹⁾ 이후

계속해서 정조의 진료를 본다.

이 해의 여름은 유독 무더워서 정조가 종종 힘들어했던 병증(膈氣와 頭癰, 不眠 등)들이 심해진다. 주명신을 비롯한 여러 의관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자⁵⁰⁾, 정조는 “내의원 의관들의 견해는 진부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결국 궁 밖의 의술이 뛰어난 자를 천거받기에 이른다.⁵¹⁾ 그러나 정조의 이 병은 더위가 어느 정도 가신 음력 8월이 되어야 가라앉게 된다. 이후 정조는 주명신과 자기 자신의 처방보다는 왕대비의 처방에 대해 의논을 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⁵²⁾

67세(정조 19년)와 68세(정조 20년)에도 역시 정조의 진료에 활발히 참여한다.

69세에는 적성현감에 제수되는데⁵³⁾ 같은 날 改

42)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8월 23일, “上曰 … 近來醫員, 康命吉·周命新外, 無可使者, 卿須思廣求培養之道好矣.”.

43)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2월 11일, “樂性曰, 嘉順宮醫官 問安, 既有自明日爲之教, 醫官望單, 依例修整以入, 何如? 上曰, 金光國·周命新·卡 待令, 今聞院例, 外職非特教, 不爲舉論云, 首醫之時帶外任者, 依筵教同爲進參, 可也.”.

44)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3월 7일, “待令醫官金光國 周命新并加資.”.

45) 『승정원일기』의 정조 17년 6월 5일 기사(“兵批…周命新爲 五衛將…”.)와 정조 17년 6월 21일 기사(“金啓洛, 以兵曹 言啓曰, 五衛將周命新, 身病猝重, 時月之內, 無望供職, 呈狀 乞遞, 宿衛輪番之任, 不可久曠, 改差, 何如? 傳曰, 允.”)에서 오위장의 직위를 받았다가 곧 개차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정조 17년 6월 19일 기사(“兵批…同知周命新, 以上竝單 付.”)에서는 同知의 직위를 가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46)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7월 12일, “李書九, 以內醫院都 提調·提調意啓曰, 議藥同參洪勉讓, 依下教汰去之意, 敢啓. 傳曰, 特教議藥之下, 事當盡其所見以對, 而以如許冷水不成 說之茶飲, 出方以進者, 極爲駭然. 聞周命新之言, 洪勉讓·卡 觀海之所同議云, 觀海則要被廢教, 近於已甚, 今番則參酌, 只以洪勉讓處分矣. 更思命新之默, 不可否於出方之時者, 雖 是渠常時本色, 駭然則同矣. 命新姑不逐, 勉讓亦爲分揀, 可 也.”.

47) 정조의 문안을 위해 입시하는 기사가 10건에 걸쳐 나온다.

48)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8월 7일, “有防曰, 臣方帶樂院, 以醫官事, 有所仰達者矣. 日前議藥同參柳光翼, 因傳教復屬 之後, 以其座次, 雖爲該聽首醫, 而至於別付料一窠, 周命新, 前此已爲受食矣. 命新即是差備待令, 則與他醫官有異, 今不 可以座次高下, 循例換付, 使之依前仍給, 何如? 上曰, 依爲 之.”.

49) 『일성록』, 정조 18년 1월 14일, “金濟默等五人該吏令兵判 棍治.”.

50)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7월 15일, “醫官金孝儉·金光國· 周命新·李敬培·李周憲·朴春源·吳仁豐·丁希泰, 以次進伏診… 上曰, 昨日午前, 頗有減勢意謂藥效忽自申後, 諸症如期復發, 夜深後, 疹癩刺痛裏外重, 坐臥俱不便, 症甚可苦, 故更進 湯劑, 少無分效, 達宵苦劇, 誠爲苦矣. 樂性等曰, 醫官使之 入診議藥, 何如? 上曰, 第令議藥也. 命新曰, 夜來症候, 或 爲表氣發散而然, 更進昨日湯劑, 似爲穩當矣. 希泰曰, 昨日 方文中, 加荆芥防風進御, 似宜矣. 樂性曰, 局方醫官, 非不 精明, 其在審慎之道, 宜乎博詢群議之爲好, 故方外略有名稱 於術業者五六, 使之待令矣. 上曰, 古亦有因大臣筵達, 別爲 權着冠帶診候之例, 諸大臣適皆登筵, 以爲如何? 濟恭曰, 近 來醫術, 亦不如古, 且渠輩既非扁鵲, 則一次入診, 何敢議藥 乎? 宗岳·憲曰, 臣等亦無他見矣. 秉模曰, 慎重之道, 廣詢議 藥, 似好矣.”.

51)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7월 16일, “醫官金孝儉·金光國· 周命新·李敬培·李周憲·李敏德·吳仁豐·丁希泰, 以次進伏診. 樂性等曰, 夜來, 聖體調攝寢睡之節, 若何? 當進湯劑, 尙未 議定, 下情不勝焦迫矣. 上曰, 寢睡之專失, 無異前日, 疹癩 略有減勢矣. 樂性等曰, 醫官使之入診, 更議湯劑, 好矣. 上 曰, 局方醫官, 都是陳腐之見, 方外醫官, 或有可問者否? 濟 恭曰, 儒醫中李世延, 頗有名稱矣. 樂性曰, 陽智縣監洪旭浩, 頗詳於醫藥, 使之待令, 何如? 上曰, 第分付畿營, 可也. 宗 岳曰, 朴興福爲名者, 亦有名稱矣. 上曰, 竝使之待令也.”.

52)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9월 3일, “上曰, 提調入侍. 賤 臣承命出傳, 與藥房提調徐有防, 醫官周命新, 偕入進伏. 上 曰, 王大妃殿湯劑, 更爲議定, 可也. 命新曰, 祛濕之劑, 不 可不進御, 而大羌活湯, 加減製之, 則人蔘雖不入, 極其平順, 且祛濕流氣, 以此進御數三貼, 似好矣. 上曰, 莫重湯劑, 以 汝一人之見, 不可議定, 退與李敬培·丁希泰等, 同爲議入, 可 也.”.

53)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6월 15일, “吏曹口傳政事, …; 周命新爲積城縣監.”.

差⁵⁴)된 것으로 보아 이는 일종의 명예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로는 정조의 진료에 참여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의로서의 실질적인 진료 행위는 이 당시 마친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에는 護軍의 직위를 가진 것으로 기록된다⁵⁵).

安義縣에서의 救療 활동

더위와 가뭄이 한창이던 1794년(주명신의 나이 66세), 백성들이 癘疾, 痢疾, 關格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자 주명신은 안의현⁵⁶)으로 가 백성들을 위한 구료활동을 한다. 이때는 그가 내의원 의관으로 봉직하던 때였으므로, 아마도 조정의 명으로 백성의 구료를 위해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날마다 수백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당시 안의현감으로 있었던 박지원은 이러한 구료활동에 대해 “인순고식(因循姑息)이요 구차미봉(苟且彌縫)이다.”라고 하여 그의 활동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한다.⁵⁸) 그러나 실

제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주명신 개인을 벌하도록 하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의관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 주명신을 비판함으로써 이러한 요식적인 구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卒

70세(정조 22년, 1798)의 나이로 卒함. 정조는 진휼청을 통해 그에게 가장 두터운 예로 장수미 등을 제공한다⁵⁹).

품계와 관직

嘉善大夫의 품계를 받았으며, 헤민서 主簿(종6품), 僉知中樞府事(정3품), 五衛將(정3품), 同知(종2품), 護軍(정4품) 등의 京官職들을 거쳤다. 말년에 外官職으로 적성현감을 제수받았지만 실제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행적을 연보의 형식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세(영조5년, 1729)	출생, 본관은 尙州, 字는 文哉.
30세(영조34년, 1758) 이전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함.
30세(1758) 무렵 이후	의서편찬 시작함.
45세(영조 49년, 1773)	헤민서 봉직. 영조에게 그의 의술을 인정받음.

彌縫)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의(福醫)로 세상에 행세하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그 복의부터 처벌해야만, 비로소 백성들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진은 그의 논문(김영진, 林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대동한문학 제 23집, 2005, 71쪽.)에서 이 글이 박지원이 안의현감으로 있을 때(1792년 1월 - 1796년 2월)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정확한 연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고을살이 3년’이라는 내용과 당시 가뭄의 기록을 참고한다면, 이 글은 극심한 가뭄이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인 1794년(정조 18)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59)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1월 19일, “鄭尙愚, 以賑恤廳言啓曰, 內醫院醫官別付料望單子, 判付內, 優給葬需事, 分付該廳事, 命下矣. 醫官周命新葬需米一石, 木三疋, 錢五兩, 從最厚例題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54)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6월 15일, “趙鎭寬, 以吏批言啓曰, 新除授積城縣監周命新今年爲六十九歲年限已過改差, 何如? 傳曰, 允.”

55)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6월 22일, “兵批, 護軍周命新...”

56) 현재의 경북 함양 지방.

57) 이규근에 따르면, 전염병이 있는 경우 조정은 내의원 의관과 약재, 처방 등을 해당 지역에 보내 구료활동을 하도록 했다. : 이규근, 조선 후기 내의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과학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p.163.

58) 박지원의 『연암집』 3권 「공작관문고」中 <上巡使>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김매기 한 뒤로 심한 가뭄이 들어, 갑자기 여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늘엔 한 점 구름도 없었습니다. 부채질을 하고 찬물을 마셔 대지만 밤낮없이 활활 타는 화로 속에 앉아 있는 듯하니, 이는 지난 60년 동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중략... 고을살이 3년에 한 가지도 은혜로운 정사가 없었으니, 재앙이 닥쳐오는 것은 이치상 혹시 당연할 듯도 합니다. ...중략... 지금과 같은 무더위에 걸리는 병은 학질과 이질이요 관격(關格)인데, 이는 풍한서습(風寒暑濕)이 원인이 되거나 허로(虛勞)와 내상(內傷)이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 주명신(周命新)을 불러오지만, 애시당초 어찌 맥박이나 증세를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진탕(二陳湯)의 약방문을 받아 적게 하고, 한편으로는 칠언율시(七言律詩)를 읊어 주고는, 국수에다 돼지고기까지 먹고 종종히 일어나 가 버리지요. 날마다 수백 가지 병을 살펴 보지만, 가는 곳마다 이런 식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그 증세를 진단하기를, ‘인순고식(因循姑息)이요 구차미봉(苟且

49세(정조 원년, 1777)	혜민서 主簿로 봉직함.
52세(정조 4년, 1780)	청 건릉제의 칠순연 축하 사행단에 참여함.
56세(정조 8년, 1784)	『의문보감』 편찬을 마침.
58세(정조 10년, 1786)	藥房(내의원)에서 봉직함. 의약동참으로서 軍職을 받고 冠帶常仕 시작함. 정조의 진료에 본격적으로 참여함. 수빈 박씨의 産室廳에서 직속한 공로로 加資받음. 8월부터 10월까지 僉知 中樞府事.
63세(정조 15년, 1791)	정조의 진료에 활발하게 참여함.
64세(정조 16년, 1792)	정조에게서 강명길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음.
65세(정조 17년, 1793)	2월 가순궁(수빈)의 문안 의관으로 임명됨. 3월 수빈의 산실청에서 직속한 공로로 加資받음. 7월 잘못된 茶飲을 낸 죄로 정조의 노여움을 삼. 6월 五衛將과 同知.
66세(정조 18년, 1794)	1월 반과의 금법을 어겨 처벌 받음. 여름 심해진 정조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음. 안의현에 파견되어 구료 활동을 펼침.
67세(정조 19년, 1795)	정조와 왕대비의 처방에 대해 의논함.
68세(정조 20년, 1796)	정조의 진료에 활발히 참여함.
69세(정조 21년, 1797)	6월 적성현감에 제수되고 같은 날 改差됨.
70세(정조 22년, 1798)	卒.

Ⅲ. 결 론

오랫동안 『醫門寶鑑』의 저자인 주명신은 숙종-영

조 대에 활동했던 醫家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일성록』, 『태의원선생안』, 『연암집』 『열하일기』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조와 정조대에 혜민서와 내의원 의약동참에 봉직했던 의원 주명신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영조와 정조에게서 높은 평가와 신뢰를 얻을 만큼 의술이 뛰어난 의관이었다. 또, 위의 문헌에 근거한 주명신의 생몰연대는 1729-1798년이었으며, 『의문보감』은 그가 56세 이던 1784년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의문보감』은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1918년, 내의원에서 고종을 모셨던 의관 이명석에 의해 8권 1책의 활판본으로 간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참고문헌

<단행본>

1. 주명신, 『醫門寶鑑』, 회동서관, 1918, 序, 自序, p.110, p.332.
2. 주명신 저, 김동일 역, 『국역한의학대계』 1권, 해동출판사, 1999, p.6.
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三木榮家, 1963, p.212, p.217.

<논문>

1. 김남일, 한국한의학의 학술유파에 관한 시론, 2004 한국 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 p.8.
2. 오재근, 조선 의서 수재 약성가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20.
3. 이규근, 조선 후기 내의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과학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p.163.
4. 이종국, 개화기 출판활동의 한 징형 - 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구 통권 제 49호, 한국출판학회, 2005.12.15., p.215, 227. pp.239-245.
5. 김영진, 朴趾源의 필사본 小集들과 작품 창작년 고증, 대동한문학 제 23집, 2005, p.71.
6. 하기태·김준기·최달영, 『의문보감』에 수록된 의

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권 4호,
2000.1, p.30.

<전자매체>

1.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DataID=KIOM_A149_Z_001&DataName=%E8%AD%B0%E8%97%A5%E5%90%8C%E5%8F%83%E5%85%88%E7%94%9F%E6%A1%88&id=KIOM_A149_4_001_0004(『태의원 선생안』 「의약동참선생안」)
2. <http://sjw.history.go.kr/>(承政院日記)
3. <http://e-kyujanggak.snu.ac.kr/>(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http://db.itkc.or.kr/>(한국고전종합DB)
5. <http://people.aks.ac.kr/>(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신문>

1. 안상우, 「고의서산책」29, 『민족의학신문』,
2000.4.24.